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고 죽는 것이 장난에 지나지 않아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⑤

솔직한 말로 태양이 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환하기 때문에 태양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캄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쨌든지 말이지 지금 캄캄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건데, 그러나 캄캄하다느니 환하다느니 이거 전부 경계놓음입니다. 경계, 그러나 캄캄한 걸 받아들이 수 있고 환한 걸 받아들이 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 캄캄할 수도 있어. 환할 수도 있어.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만 그대됩니다. 그대됩니다. 우리가 더 그거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공부 다 됐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람을 하는 것은 별 문제예요. 공부는 다 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밤이랄 말이죠. 여러분이 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이 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낮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겠지요?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성도화보살, 말해보세요. 밤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낮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낮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밤을 받아들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객관적인 조건, 이것이 낮도 되고 밤도 돼.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이래 되는데 전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니까.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고귀한 자립이다. 그 자리 절대적 자립이다.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립이다. 생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의 행사입니다. 나는 것도 내 권리의 행사고 죽는 것도 내 권리의 행사거든요. 권리의 행사라요. 물론 그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고 환상놀이겠지만은 환상놀이를 함으로써 인간 생활을 우리가 엮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리의 행사라요. 나는 것도 내 권리. 아무것도 모르

는 사람들은 아, 그만 부모가 났다 그래서 한 다섯 살 여섯 살 열 살 먹어야 난 줄 알거든요. 그러나 본래 그 자리를 이걸 갖다 탁 알아버리면은 나고 죽는 것이 전부 하나의 권리 행사, 장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 진심자리를 알면은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돌려(돌아) 가지 맙시다. 돌려 가지 말아. 돌려 가도 가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돌려 갈라 하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하지만은 말이죠 아직까지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시공간이란 요런 관념이 남아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갑시다. 우리는 돌려 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을 합시다. 뭐

“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
시공간 개념 남아 있어요
생사는 내 권리의 행사
찾는 것도 버리려는 것도
다 허공임을 알아야 해요

”

솔직한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땀이고, 육조대사만 직행한 사람입니다. 직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저 업이 많기 때문에 업을 녹일라니까 자연히 고생을 좀 하는 것이지요. 하니 이것은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은 즐거운 고생이지 나쁜 고생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쁜 고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업의 당처가 빈 줄 안다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업, 그 당처가 전부 빈 거예요. 참 이거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빈 거예요. 업의 당처가 빈 거예요. 빈 줄만 알아버리면은 아 그만 마음이 탁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면은 그만 업에 휘둘러 버립니다. 좋은 업이면 좋은 업에 흘러버리고 나쁜 업이면 나쁜 업에 흘러 버려요. 나 이거 어제 신문 보고 짜증나 나 죽었습니다. 밭어먹을 부산 살지 맙시다. 부산 놀이 사람 사이나(셋이나) 죽었네. 아이구, 기가 막혀서 죽겠어요. 물론 업연과계이겠지요. 난들 알

력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서이나 죽여서 돈 때문에 죽여서 자기 정원에 파묻었다니 아이고, 나중에 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딱 깨놓고 그 사람도 성 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묶여서, 물론 사형감이지. 그건 우리가 별주는 건 아니니까 말할 거 없고, 그 사람이 업의 당처가 빈 줄 안다면은 이 육신, 형무소에 들어앉아 사형집행 할 때까지 성 불합니다. 나중에 이거 버리는 거 문제 아닌 거 아니냐? 언제는 우리가 안 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한 번 두 번만 버려 봤나요. 우리가 수 억 천만 번 우리가 몸을 버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좀체 그 마음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것이 인제 직행코스라 나가는 길인데 내가 말한 거. 그 흉악한 죄 아니에요? 삼도지옥 열 번 천번 만번 면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 해야 되고 모습으로 봐선 그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러나 저러나 그 당처가 빈 줄만 알아 버리면은 이 사람도 이 육신 그대로 성 불할 도리가 있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하니 우리 이래 합시다. 우리 직행으로 갑시다. 직행, 고속버스 타고 갑시다. 벌써 우리가 고속버스가 준비됐습니다. 됐으니 오늘 말이죠 마음의 소재(所在, 난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기인가 저기인가 거기인가. 허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여기 허공인가, 잡랄라 해도 없고 피할라 해도 가도 또 허공이고 가도 허공이니까, 도대체 이거 어느 허공이고 무슨 당분간 말이죠 몇 시간 동안 뭐 하겠지만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말이죠 아, 이 자리구나. 찾올라 한 것도 전부 헛 거꾸구나. 버릴라 하는 것도 전부 헛 거꾸구나. 마음 찾올라 하는 것 헛 거 아니에요? 마음 버릴라 하는 거, 탐진치 버릴라 하는 거 헛 거 아니에요? 사랑 분별 망상 버릴라 하는 거 전부 헛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참 이젠 우리가 인간 절대적 속한 문제입니다. 지구덩어리 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 버려놓고 이것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우리는 인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길은 나왔지요? 그 길로만 다니면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 보림선원

간절히 염불하면 누구나 구제해줘

14-5 십념(十念)

‘무량수불전’에 하는 것은, 우주의 헤아릴 바 없는 대성명을 깨치신 그의 앞에 나가서 말씀 올리고. 그 분인즉 대자 대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삼고 있는 아미타불이다.

‘우러러 두 손 모아’는 큰 서원이 깊은 그 부처님 앞에 귀명(歸命)한다. 목숨을 돌이켜 빌고 절 한다는 것. ‘원왕성 원왕성’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 나는 기어이 당신과 같은 그런 생애에 들어가 극락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것.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이것은 혼구(欣求)라고 한다. 혼구정토(欣求淨土), 기꺼이 정토를 구한다. 그리움은 아까 말하였듯이 인간의 영원한 자세다. ‘사뢰어 주소서’ 우리의 원행(願行)이 보은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그 큰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는 이사연을 일러다오.

‘이 몸 버려두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아미타불 당신인들 어찌 마음 편하고 자신의 덕을 이루실 수 있겠느냐는 말. 중생의 제도 없는 대자대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건질 사람 없는 구세주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생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구제할 주인이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원효대사의 논리로 볼 진데, 소공역공(所空亦空)이라는 제 3의 테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달픈(高踏的)인 교학의 진리나 어려운 현실의 중도(中道)는 우리들 고달픈 중생에게 힘겨운 일이므로 확실한 믿음을 얻어, 염불을 외우므로서 이행도(易行道)를 밟아 가자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 자신도 그렇게 말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지경을 말한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은데 복잡하게 잡념을 일으킬 것 있느냐. 정신 통일하여 정성껏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자. 이런 생활이다.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염불수행을 하고, 몸도 목욕재계하고, 입을 양치질 하고, 뜻을 맑히고 이렇듯 기도하고, 정진하고, 성스러운 수도 생활을 하고, 성자 생활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우리가 비록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안태한 극락세계로 간다. 극락 상품

(上品)으로 올라 아미타불을 진전하는 생활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은 아니다. 현실을 옮겨 파악하고 극락세계에 가 있는 것만 좋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왕생으로 사회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사회성을 알고 그리로 나아가야겠다. 희망할 따름이 아니라 대사회성을 간파한 다음에는 그 지경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저 열빠진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더 비근한 예로는 자식들을 위해, 일을 위해, 그 가엾고 어여쁜 것들을 위해, 약이라도 겹도 내지 않고,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데도 사로잡지 않는 자재로운 활동으로 제도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염불하는 사람의 보은 ·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

미타의 대본원력은 수승한 힘
아미타불 간절히 부르면
시방세계 광명 두루 비추어
금빛 찬란한 손길 내밀어준다.

”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의식을 깨친 사람의 대사회적 생명, 사명을 이룩해 나가는 자리인 것이다. 대사회적 사명을 이룩해 나간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사의한 수승(殊勝), 아주 뛰어난 원력(願力)에 의하여 이 지경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것을 나무아미타불, 칭명 염불하는 가운데 얻어진다. 비상한 원력이 이에서 솟아나고, 우리는 보은 · 감사의 지경에 도달한다. 이것이 다음에 말하는 섭취계(攝取僞)란 것이다.

15. 섭취계(攝取僞)

광명편조(光明遍照) 십방세계(十方世界) 염불중생(念佛衆生) 섭취불사(攝取不捨)

염불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조리 다 섭취(攝取)해서 건져 준다. 미타의 대본원력(大本願力)이 우리에게 아주 수승한 힘이 된다.

품에 안는다. 광명(光明)이 두루 퍼져서 십방(十方) 세계에 아미타불 목말라 부르는 중생들에게 손을 뻗쳐, 일일이 금빛 찬란한 손을 뻗쳐 품에 안는다.

한 사람들을 버리기가 하리.

미타의 본원력(本願力)에 우리가 실려, 배라 할까, 비행기라 할까, 그것을 타면 혼자 제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리. 그 힘으로 삼시간에 천 만리를 갈 수 있다. 그런 비유를 든다. 원시경전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다. 배를 타고 가는 비유인데, 율행 길을 혼자 가다가, 큰 강을 만났다. 이를 건너야 목적지에 닿을 것인데 좋은 도리는 없을까. 한참 만에 배 한척을 찾아내었다. 그것을 타고 노를 저어 이제 어렵게 건너편 언덕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을 건너 놓고 생각하니 배가 어떻게나 고마운지 측량할 길 없다. 그리고 보니 배가 여간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문득 애착이 붙어 버린다. 배를 뒤집어서고 육지를 걸어 갈 수는 없다.

배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과정이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강을 건너는 것이며, 이는 달성했다. 그러면 배를 가지고 육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念佛) 자체를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아미타불을 봐야 하고, 그의 본원력(本願力)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공상역공(空相亦空), 공공역공(空空亦空)은 아직 배를 가져가야 하나 어떻게나 망설이는 상태. 그 배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이다. 소공역공(所空亦空)의 자리에서는 배건 땀이 건 그것이 유용(有用)하다는 데 대해서까지 애착이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인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gib)an
● 나만의 원색세계 기(gib)an
● 기(gib)an 충전 안정과 편안, 건강한 나만의 안락입니다
● 기(gib)an 충전 안정과 편안, 건강한 나만의 안락입니다
● 기(gib)an 충전 안정과 편안, 건강한 나만의 안락입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